

| | | | | | | | |
|--------------------|--|-------------|--|------|--|----|--|
| 감독자 서명 |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새터민/외국의전교육과정이수자 특별전형 문제지 | | | | | | |
| 2016년 7월 12일(화) 시행 | | | | | | | |
| 시험과목 | 국어 | 지원 학부(과) | | 수험번호 | | 성명 | |

1. 다음 중 올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ㅈ

2. 다음 중 발음이 어문 규범에 맞게 표시된 것은?

- ① 깻잎[깻넙]
② 신여성[시녀성]
③ 문고리[문고리]
④ 발바닥[발바닥]

3. 다음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

- ① 케익(cake)
② 비전(vision)
③ 차트(chart)
④ 보우트(boat)

4. 다음 중 유음화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국물[궁물] ② 좡고[조코] ③ 난로[날로] ④ 같이[가치]

5. 다음의 국어 음운에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앞 음절의 후설 모음이 뒤 음절의 전설 모음 ‘ㄹ’의 영향으로 전설 모음으로 변하는 일이 있다.
②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의 일곱 개뿐이다.
③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한다.
④ 발음의 편리를 위해 서로 다른 두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것을 동화라 한다.

6. 다음 옛 글자 중 모음을 표기한 글자는?

- ① ㅸ ② ㅹ ③ ㅺ ④ ㅻ

7. 다음 단어 중 조어법이 다른 것은?

- ① 시누이 ② 양배추 ③ 왕고집 ④ 보슬비

8. 다음 단어 중 복수표준어인 것은?

- ① 담배꽁초/담배꽁치 ② 셋별/새벽별 ③ 가뭄/가물 ④전봇대/전선대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은?

- ① 오늘 부터 방학입니다.
② 입학한 지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③ 이 책은 국어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하다.
④ 먹을 만큼 먹어라.

10. 다음 중 맞춤법에 맞게 쓰인 문장은?

- ① 깍뚜기를 먹었다.
②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다.
③ 음식을 뚝뻘기에 가득 담아라.
④ 자장면을 곱빼기로 시켜 먹었다.

11. 다음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의 의미는?

- ①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
② 매우 사소한 일이지만 흔적이 남는다.
③ 일의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
④ 남에게 악한 일을 하면 그 죄를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

12. 다음 중 품사가 다른 단어는?

- ① 빠르다 ② 슬프다 ③ 먹다 ④ 예쁘다

13. 다음 중 두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가 다른 것은?

- ① 남성-여성 ② 총각-처녀 ③ 오다-가다 ④ 직업-공무원

14. 다음 중 두 단어 사이의 문법 관계가 다른 것은?

- ① 속다-속이다 ② 익다-익히다 ③ 말다-말기다 ④ 먹다-먹히다

15. 다음 중 한자의 독음이 잘못된 것은?

- ① 학교(學校) ② 중요(重要) ③ 국가(國際) ④ 가요(歌謠)

16. 다음 중 ‘경솔하여 생각 없이 가볍게 행동함’의 의미를 지닌 것은?

-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② 가렴주구(苛斂誅求) ③ 타산지석(他山之石)
④ 경거망동(輕舉妄動)

17.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친구들이 떠드는 통에 교실에선 공부를 못하겠다.
② 늘 동전을 넣어 두는 통에 돈이 가득 찼다.
③ 우리 가족은 난리 통에 뿔뿔이 헤어졌다.
④ 내가 한 번 가 본다 가 본다 하면서도 영감이 가로막는 통에 갈 수가 있어 야지.

18. 다음 중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어떤 작가는 부주의하거나 착각 때문에 틀린 문장을 쓰곤 한다.
② 젊은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젊어지고 나가는 재목이다.
③ 저에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④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이 민족 분열의 수단인 동시에 정치 선전이였다는 것이다.

19.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

그 사람한테는 비밀을 털어놓지 마. 그 사람은 _____.

- ① 입이 높아
② 입이 짧아
③ 입이 가벼워
④ 입에 풀칠해

20.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말은?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 ① 애타게
② 즐겁게
③ 고통스럽게
④ 들뜬 마음으로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옛날의 독서는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 내어 읽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서당에서 ㉠낭랑하게 목청을 돋우고 가락에 맞추어 책을 읽었다. 선생은 좌우로 몸을 흔들고, 학생은 앞뒤로 흔들며 읽었다. 책을 읽는 낭랑한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그렇게 읽다 보면 그 가락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뇌리에 스며들어, 뜻을 모르고도 글을 외울 수 있었다. 의미는 소리에 뒤따라왔다.

(중략)

- ② 수박을 얼음물에 채워 두었다.
③ 날이 추우니 외투의 단추를 단단히 채워라.
④ 별에 잘 말린 기저귀를 아이에게 채웠다.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가) ㉠슈국(水國)의 ㄱ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당파(萬頃澄波)의 슬크지 용여(容與)호자
지국충(至芻糗) 지국충(至芻糗) 어스와(於思臥)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 윤선도, 「어부사시사」

(나) 징이 올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②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환희를 노래하고 있다.
② 농촌생활을 목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이야기 형식의 산문적 어조의 시이다.
④ 축제적, 달관적, 희망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함께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② ㉡ :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 :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후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느낄 수 있다.
④ ㉣ : 흥에 취하여 추는 농무(農舞)의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조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名利)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一朝)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지조 있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곤고(困苦)를 이해할 뿐 아니라 안심하고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者)이기 때문에 지조 없는 지도자, 배신하는 변절자들을 개탄(慨歎)하고 연민(憐憫)하며 그와 같은 변절의 위기의 직전에 있는 인사들에게 ㉣경성(警醒)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조지훈, 「지조론」

34. 윗글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것은?

- ① 지도자에게는 지조가 있어야 한다.
② 지조를 가진 자라면 권력은 자연히 따른다.
③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지조는 큰 가치와 위력을 지닌다.

35. ㉠~㉣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 ① ㉠ : 목표가 분명한
② ㉡ : 확신과 아집
③ ㉢ : 이치
④ ㉣ : 타일러 깨우침

36. 다음 중 윗글을 쓴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변절을 일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각성을 부르짖고 있다.
② 우리 역사 속에서 지조를 지킨 위인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③ 사라져 가는 선비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개인이 교양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엄마는 또 내 귓가에 소곤소곤 내가 서울 가서 앞으로 되어야 하는 신여성에 대해 얘기해 주기도 했다.
“신여성이 뭘데?”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지는 대신 히사시까미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뽕जू두 신고 한도바꾸 들고 다닌단다.”
내가 히사시까미, 한도바꾸에 전혀 무지하다는 걸 아는 엄마는 기차간을 한번 골고루 휘둘러보고 나서 저기 저 여자의 머리가 히사시까미, 조기 조여자가 무릎 위에 놓고 있는 게 한도바꾸 하는 식으로 실물을 견학까지 시켜 가며 열성스럽게 신여성이 뭔가를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기차간에 한 몸매 그 여러 가지 신여성의 구색을 갖춘 여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춘 신여성이라는 걸 상상하긴 어렵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실망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긴 머리꼬리에 금박을 한 다홍 땃기를 드리고 싶었고 같은 빛깔의 꼬리치마를 버선코가 보일락 말락 하게 길게 입고 그 위에 자주고름이 달린 노랑저고리를 받쳐 입고 꽃신을 신고 싶었다. 나는 한창 고운 물색에 현혹돼 있었기 때문에 신여성의 구색인 검정치마, 검정구두, 검정 한도바꾸가 도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신여성은 뭐 하는 건데?”
나는 내가 고운 물색으로 차려입고 꼭 하고 싶은 게 널이나 그네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엄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은 몹시 난처해 보였다. 어른들은 가끔 그런 얼굴을 잘했다.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할 때라든가, 슬픈데도 안 슬픈 척할 때 어른들은 그런 얼굴을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모르면서도 알은 체하려 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생글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란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나는 신여성의 걸모양을 그려 보았을 때보다 더 크게 실망했다. 신여성이 그렇게 시시한 걸 하는 건 줄 처음 알았다.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고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기차는 칙칙폭폭 무서운 속도로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중략)

나는 옛날의 등성이를 넘기를 단념하고 새로 쌓아 내려가고 있는 성벽을 따라 사직터널 방향으로 내려왔다. 샌들 속으로 모래가 들어온 걸 벗어나서 털면서 나는 문득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니가 낫설고 바늘 끝도 안 들어가게 척박한 땅에다가 아등바등 말뚝을 박으시면서 나에게 ‘제발 되어서이다’라고 그렇게도 간절히 바란 신여성보다 지금 나는 너무 멋쟁이가 돼 있지 않은가. 그러나 신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머니가 생각한 것으로부터는 얼마나 열토당토않게 못 미쳐 있는가.

- 박완서, 「엄마의 말뚝 I」

37. 다음 중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엄마는 나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의지적 인물이다.
- ②

어린 나는 엄마의 생각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이다.
- ③

어린 나는 엄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한다.
- ④

엄마는 나를 신여성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상받고자 한다.
38. 다음 중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1인칭 시점이지만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②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
- ③

장면에 대한 긴박감 넘치는 묘사를 보여준다.
- ④

들은 바를 회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39. 다음 중 위의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엄마는 구여성의 복색을 부끄러워한다.
- ②

엄마는 신식 교육에 대한 선망이 있다.
- ③

엄마는 봉건 사회 속에서 교육 받고 자란 구식 여성이다.
- ④

엄마는 자신의 딸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40. 다음 중 위의 소설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한국전쟁, 산업화, 도시화 등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세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어머니 세대에 대한 회상이기도 하고, 어머니 세대와 딸의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 ②

어른이 된 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열렬히 열망했던 신여성의 기준이 지닌 이중성을 깨닫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신여성의 걸모양과 신여성의 능력, 속된 허영과 높은 이상 사이의 모순 말이야.
- ③

이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과거의 삶이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이나 반추가 아니라 현재라는 생각이 들었어. 현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문제인 것이지.
- ④

한 개인의 체험을 통해 시대와 역사의 비극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어. 전쟁이라는 폭력 때문에 생긴 주인공의 정신적 외상이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